

한국 전통건축美의 표현요소와 아트퍼니처 연구 *Th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Aesthetics of Art Furniture*

임 광 순 RIM KWANG SOON



Rim, Kwang-Soon

Th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Aesthetics of Art Furniture

[한글]

[목차]

[추천의 글]
[작가노트]
[임광순]
[자연미와 비례미의 표현요소]
[재료적 구조미와 기능미의 표현요소]
[공간적 감성미의 표현요소]
[흔 적]

Contents

Recommendation	2
Artists' Statement	6
Rim, kwang-soon	11
Factor of expression of natural and proportional beauty	12
Factor of expression of material construction and functional beauty	26
Factor of expression of spatial sensibility to beauty	44
Vestige	54

[추천의 글]

우리는 예로부터 다양한 자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양 사상에서 자연을 보는 관점과 서양에서 자연을 보는 관점이 달랐으며 시대에 따라서 자연을 인식하는 관점이 변화하기도 한다. 한국 전통건축 미는 한 예로, 기와 지붕을 볼 때 그것은 하나의 훌륭한 곡선의 미이며 한국 전통건축만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이는 자연 환경이나 시대적인 사상을 통하여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것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스러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광순 박사학위청구전은 아트퍼니처의 새로운 표현적 접근방법으로 한국 전통건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를 아트퍼니처란 새로운 영역으로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오랜 시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건축 답사를 통하여 얻은 미적 경험의 산물로 박사학위청구작품을 통하여 얼마나 한국적 조형성을 추구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의 박사학위청구작품은 가구의 새로운 개념으로 아트퍼니처를 소화해 내려는 데 있어 기본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 전통건축 미의 새로운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 아트퍼니처의 실험정신의 표현이다. 한국 전통건축 미의 새로운 해석은 우리 전통건축의 부재인 석가래, 대들보, 기둥, 공포와 같은데서 볼 수 있는 기법과 형상들을 이번 박사학위청구전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 실내공간에서 바라본 풍경작용을 통하여 공간적 감성미를 비롯, 소로 같은 작은 부재를 이음과 맞춤기법 등을 통해 작품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전통기법을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들은 입체감을 상징과 은유적 표현으로 더욱 강조하면서 건축 양식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조형적 언어로 승화한 것이다. 또한 그는 박사학위청구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작품에 표출된 표면의 목리문을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최대한 자연미를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양한 표현요소와 주제로 작업해 오는 동안 자연에서 얻은 미적 경험이 그의 조형작업의 기반을 이룬 동기라 믿어진다. 그것은 목리가 연출해낸 부드러운 곡선미와

함께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고유의 자연미를 일깨워주는 반면 미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융합적 개념인 아트퍼니처의 실험정신을 임광순은 박사학위청구작품을 통하여 잘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전통미에 대한 자신의 미적 개념을 연구작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소화하여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내재적인 미적 잠재력을 실험적인 기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부각시키며, 한국적인 미의 표현요소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특히 그가 사용한 재료는 우리 토양에서 자란 소나무로 우리의 문화적 요소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그의 박사학위청구작품은 목재 자체의 자연미를 살리면서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 시대정신의 접목을 통하여 실내공간에 새로운 조형미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그의 작품이 공간과 공유되는 새로운 조형개념을 태동시키는 실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현대 아트퍼니처는 이전의 모더니즘 가구에서 보이는 획일화된 조형언어에서 벗어나, 오브제적인 미적요소와 기능적인 가구 개념을 통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작자의 조형적인 독창성을 통한 미의식을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미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임광순 박사학위청구전에서 추구된 아트퍼니처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과 실용성의 미적 탐구는 가구의 예술적 가치 부여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수공예적인 가치로 승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성 회복의 노력으로 귀결되면서, 이 시대 아트퍼니처가 갖는 사회적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광순이 제시한 한국 전통건축의 조형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융합된 아트퍼니처가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 병 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Recommendation]

There have been many diverse views of nature from ancient times. The point of view from the Oriental thought and the perspective to look nature in the Western has been different and the concept of such viewpoints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s. For one thing,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architecture presents an excellent beauty of the curved line by its tiled roof and this belongs to the unique beauty that only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ould describe. Also it has been built up through natural environment and the thoughts of the times for a long time and naturally made up in sympathy with the nature.

RimGwang-soon's doctoral dissertation is a new expressive approach to Art Furniture which analyzed various factors foun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presented them as a new field, Art Furniture. This is the outcome of his aesthetic experience which he achieves by exploring traditional architectu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for a long time and belongs to a part to show how he pursued to present Korean formative art through the doctoral dissertation.

His doctoral dissertation can be divided into 2 basic directions at assimilating Art Furniture as a new concept of furniture.

The one is a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other is an expression of experimental spirit of contemporary Art Furniture. The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architecture means that the construction techniques showed in the important elements forming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like rafter, beam, pillar and 'gongpo' (supporting panel at the edge of the eaves) has been newly interpret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beauty 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In detail, spatial sensibility to beauty was presented by the landscape seen in interior space of architecture and furthermore the traditional technique was expressed as modern formative language by reinterpreting the squared wood e.g., a small element of architecture through connecting and assembling. In the work, cubic effect was remarkably expressed and symbolic power emphasized more metaphorically as well, so the co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were sublimated into formative language in his research work. Furthermore, the grain of wood displayed in his research work for doctoral dissertation looks not artificial at all, but it realized natural beauty to the maximum. This was very probably based on

that his aesthetic experiences obtained from nature during working with various factors of expression and theme motivated his formative work. His research work performed the aesthetic function properly while arousing not only the beauty of the curved line which the grain of wood presents, also Korean natural beauty which is potential.

The other directions that the experimental attempt of Art Furniture, the convergence concept between modern art and design was well presented in the dissertation of Im Gwang-soon.

This resulted naturally from the fact that he intended to assimilate and express independently his own aesthetic concept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beauty through his research work. What he pursued was to highlight internal aesthetic potential through the experimental technique primarily, to represent the factors of expression for Korean beauty naturally. In particular, the material he used is pine tree grown in our country into which Korean cultural factors filtered deeply. His dissertation based on this characterized the formative beauty displayed interior space by combining the traditional technique with the spirit of modern times and at the same time by exhibiting the natural grain of wood itself. This means that his research work played a role as an experimental catalyst in starting a new formative concept shared with space.

Contemporary Art Furniture requires the change of the way of thinking through the objet aesthetic element and functional concept of furniture, while breaking from the standardized formative language showed in the existing modernism furniture. This is placing a new field by offering the users aesthetic pleasant thanks to the aesthetic consciousness expressed by the formative creativity of the producer.

The aesthetic exploration pursued in this dissertation regarding the form and practicality which Art Furniture has provides furniture with an aesthetic value and also it is sublimated into the power of the handcraft in modern society. These efforts follow the recovery of the humanity and represent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ociety. Art Furniture which Im Gwang-soon suggested and in which the formative beauty and modern practicalit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converged is expected to make an opportunity in order to go global.

Choi, Byung-Hoon

*Professor /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작가노트]

임광순

아트퍼니처를 접하게 된 배경은 1991년 대학시절 예술적 표현요소를 주제로 한 가구 학습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능적인 표현요소만을 가지고 제작했던 실용가구와 다르게 조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고려하여 표현한 것으로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 후 다양한 전시회와 작품참여 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아트퍼니처를 전개해 왔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 「토기형태를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는 빗살무늬라는 모티브를 그 당시 아트퍼니처의 표현방법인 연구 주제로 제시한 것이며, 이것은 본 박사학위 청구작품과의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는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실험적 과정을 통하여 아트퍼니처에 대한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전통건축 답사를 통하여 미적표현요소를 경험적 바탕으로 삼았으며, 마침내 한국 전통건축미의 표현요소를 통한 아트퍼니처를 제작함으로써 2010년 8월 16일 박사학위청구작품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전통건축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건축관으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그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적당한 형태와 크기로 건축되어 왔다.¹⁾ 이것은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사용함과 자연원리에 의해 표현된 건축구조로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얻은 결과이다. 한국 전통가구는 전통건축을 이루는 자연미와 함께 실내공간에서 한국인의 풍토와 생활의 정서를 통한 깊은 내면의 세계를 담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조형을 최소화 줄이고 자연의 나뭇결을 최대한 살린 목리(木理)의 시각적 효과를 가구에 유도함으로써 심미적인 자연미 특성을 표출해 냈다.

현대에 들어서 가구는 전통미의 계승을 현대적으로 전환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미에 관점을 두고 동시에 전통과의 유기적 상관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즉 한국 전통건축과 가구가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현대가구에서 건축을 통한 미적개념과 표현요소를 또 다른 창조적 사고로 인식하고 이를 감성미로 표출하면서 새로운 장르인 아트퍼니처를 도출해 내고 있다.

이 전시는 한국 전통건축미의 표현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아트퍼니처에 제시한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자연미와 비례미 표현요소, 재료적 구조미와 기능미의 표현요소, 그리고 공간적 감성미의 표현요소이다.

먼저 자연미와 비례미의 표현요소는 우리나라 자연미로부터 표현된 전통건축부재에서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시간적 질감과 오브제적 감성미의 표현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전통건축에서 드러난 입면의 구성과 창호는 전형적인 황금비(黃金比)와 자승근비(自乘根比)에 나타나는 비례미이다. 이는 구성주의에 가까운 대칭과 비대칭의 적절한 조화로 아트퍼니처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재료적 구조미와 기능미의 표현요소는 연구자가 창작하는데 있어 소나무는 따듯

불/ 보의 옛말

보/ 들보와 같은 말

들-보/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ㄴ' 자 모양, 마룻대와는 'ㅊ' 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

한 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견고한 재료로 조형 형태를 제작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였다. 특히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 세계관을 한국적 자연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표현요소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구조미의 측면은 연구작품이 우리 전통가구의 비례미를 통한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형과 근본적인 요소는 한국 전통건축 구조나 양식에 표현된 요소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 요소로 전통기법을 근원으로 삼았다. 기능미의 측면은 아트퍼니처가 오브제적인 미적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 측면으로 중요한 개개의 작품 속에 원기능적인 미적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공간적 감성미의 표현요소는 한국 전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풍경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아트퍼니처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조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식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공간에 놓일 때 생기는 관조적인 심미성을 생각하여 극도의 절제된 형태만을 추구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가 연상 작용에 의한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아트퍼니처가 감성미의 표현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건축에서 쓰인 부재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의 자연미로부터 아트퍼니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점, 둘째, 전통건축과 실내와 전통가구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가구구조에 사용된 전통결구방식의 우수성과 간결함 그리고 세련미와 장식미를 발견한 점, 셋째,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를 아트퍼니처에서 표현된 질감과 상감기법을 통한 유기적인 조형미로 연구작품에 표현요소로 제시한 점이다. 특히 전통건축 부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의 흔적들은 독특한 오브제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아트퍼니처에 접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연계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소나무 재료의 옛것 재료자체에서 오는 물성을 감성적 의미로 연구작품에 제시하였고, 거기에 부여되는 쓰임에 대한 기능적 역할을 충실하게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심미적 기능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한 공간에서 효율적인 조형물로 아트퍼니처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감성미의 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이 연구작품을 통해 현대 아트퍼니처로 현대인의 생활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이러한 조형이 확대되어 환경 조형물로서의 기능이 또 다른 의미로 변용된다면 이 역시 이 연구의 의의를 한층 높여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작품을 통하여 개인의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방향으로써 의미 있는 아트퍼니처를 제시하는 목적은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감성을 통하여 마음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문화의 전통미를 계승 발전하여 전통건축과 실내와 전통가구의 유기적인 상관성을 통한 현대 실내 공간에 새로운 영역의 한 장르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¹⁾ 김정기, 『한국 목조건축』, 일지사, 1979, p. 45.

뿔/ Old expression of beam

보/ Synonym of beam

들 - 보/ The wood which across between space and space and is the 'ㄷ' typed with the purline and the 'ㅊ' typed with the ridge beam

[Artist's Statement]
_Rim, kwang-soon

The background to experience Art Furniture goes back to the college years particularly 1991 when the author has studied furniture focused on the aesthetic factors of expression. Unlikely the practical furniture produced by functional factor of expression only, Art furniture expressed much in consideration of the formative aspect interested the author very freshly.

Thereafter, the author has constantly developed Art Furniture through different exhibitions and participation in cre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thesis of my master's degree 「A Study on Furniture Design using the shapes of earthenware」 has suggested the motive of the teeth of a comb-pattern as a research subject for expression of Art Furniture at that time and this point can be acknowledged as a part already which extends into this dissertation. So, it played a role as a motivation to seek the possibility of Art Furniture steadily on the basis of the constant researches and experimental processes. Furthermore, the aesthetic factors of expression which the researcher gained through the fieldwork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contributed to the empirical background and Art Furniture has been finally created by th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has been displayed in the exhibition for this dissertation on August 16, 2010.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based on the Yin-Yang and Five Element theory and it was constructed in appropriate size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without disturb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¹⁾This resulted from the sense of belonging to nature by using material chosen from nature and on the basis of the form of construction expressed by the law of nature. Traditional furniture includes the deep inner world presented by the natural characteristics and sensibilities of Korea in interior space, in accordance company with natural beauty composing traditional architecture. In addition, it expressed the aesthetic perspective of beauty by minimizing artificial formative factors and by making the most use of a visual impact of the natural wood grain. In recent years, furniture should keep the tradition in up-to-date way, so the natural beauty has been gradually focused and the coordinated relation with the tradition involved at the same time. A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required close relationships with traditional furniture, modern furniture has differently realized the aesthetic concept and factors of expression through architecture in creative methods and Korean sensibility properly expressed in the process, so this has played a role as background for the birth of the new genre, Art Furniture.

This exhibition intended to give a real inspiration to Art Furniture by suggesting three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architecture. These are the factor of the expression of natural and proportional beauty, the expression of material construction and function and the expression of spatial sensibility to beauty. The factor of the expression of natural and proportional beauty is the expression of the long-timed texture and objet sensibility touch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s from Korean natural beauty. Another factor is that the front view of construction and windows and doors showe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presented the typical golden ratio and the square root ratio. This is an appropriate harmony between symmetry and asymmetry being similar to constructivism, so Art Furniture is reinterpreted by the researcher in consideration of modern sense.

Regarding material construction and functional factor of expression, pine tree was the ideal object

for the researcher to create Art Furniture, because it presents the warm texture and the solid characteristic at the same time, which is helpful to make formative shapes. In particular, physical appearance of pine tree contributed to researcher's view on the world in order to create and express Art Furniture in natural Korean beauty. From the construction asp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search work has an abstract form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nevertheless the appearance and fundamental elements all pursue the factors expressed in construction and patter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at is the reason why the traditional technique is based on making Art Furniture for this dissertation. From the functional aspect, Art Furniture should satisfy not only aesthetic requirements, but also functional characteristics which it has primarily, despite of its objet aesthetic nature.

For the expression of the factor of the spatial sensibility, researcher pursued the utmost controlled shape only concentrating the essential formative factor which Art Furniture has without decorative factors and considering the contemplative sense of aesthetic. Therefore Art Furniture makes interior space like a part of nature and offers broad mind like exactly what nature does. The reason lies in that the users feel pleasant and satisfied at placing Art Furniture in the space because they positively accept the use and beauty of Art Furniture. Furthermore the users themselves find their personal meaning thanks to their own memories and association process and here is the point how Art Furniture plays a role as factor of expression of sensibility.

The importance of the study lies in the following analytical perspective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natural beauty and Art Furniture was presented by reinterpreting the objects used for the past architecture modernly. Second, the excellence and simplicity of traditional joint technique and the refined and decorative beauty was discovered on the basis of the organic relations among traditional architecture, interior space and traditional furniture. Third, Korean traditional color was suggested in the research work in the form of organic formative beauty, with the help of the texture expressed in Art Furniture and inlaid work. In particular, the vestiges of the times which the artifac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had were expressed in unique objet characteristics and this image was combined with Art Furniture according to the up-to-date sensibility for describing the connec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times. And the property of material of pine tree was presented as of old for the expression of sensibility in the research work, also its functional roles for the uses were sufficiently informed. Finally, functional meaning of the spatial sensibility to beauty was reported, which Art Furniture as effective creature includes in the space where aesthetic fun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prevail. In this regard, the research work as modern Art Furniture should contribute to the life style of modern customers. Besides,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study should be even raised when the functions of such construction as environment creature will be modified into another meaning while they will be widely distributed.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should be defined as a new genre in modern interior space by suggesting meaningful Art Furniture of new direction in this age when the individual originality is highly regarded, by purifying the user's mind through different sensibilities, by succeed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beauty of Korean culture and by informing the close correlation among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nterior space and traditional furniture.

¹⁾ Kim, Jung-Ki 「Korea Wooden Architecture」, Ilji-sa, 1979,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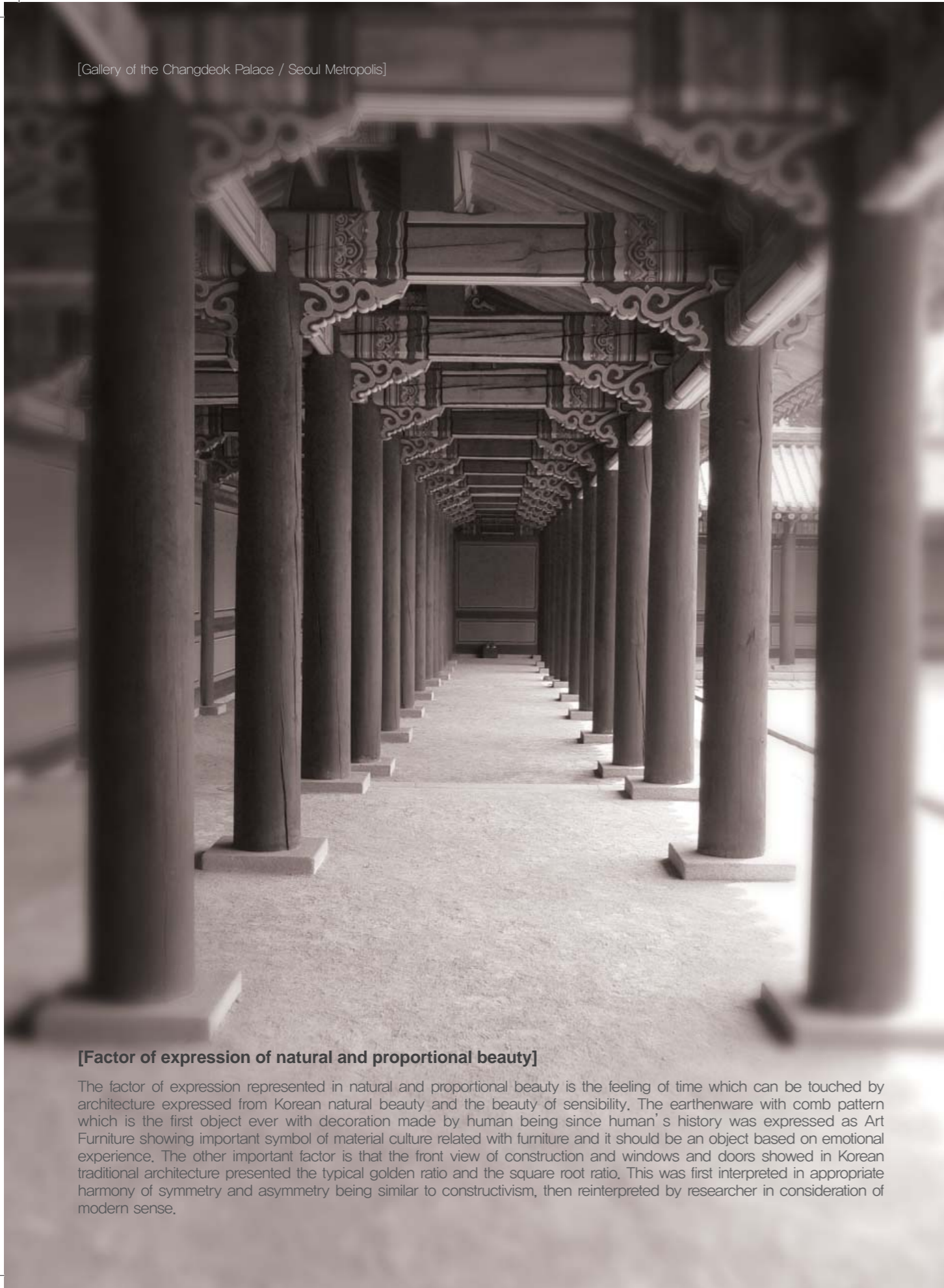


[The first Museum of Modern Art at Hongik University]

Rim, Kwang-Soon

Th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Aesthetics of Art Furniture

[Gallery of the Changdeok Palace / Seoul Metropolis]



[Factor of expression of natural and proportional beauty]

The factor of expression represented in natural and proportional beauty is the feeling of time which can be touched by architecture expressed from Korean natural beauty and the beauty of sensibility. The earthenware with comb pattern which is the first object ever with decoration made by human being since human's history was expressed as Art Furniture showing important symbol of material culture related with furniture and it should be an object based on emotional experience. The other important factor is that the front view of construction and windows and doors showe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presented the typical golden ratio and the square root ratio. This was first interpreted in appropriate harmony of symmetry and asymmetry being similar to constructivism, then reinterpreted by researcher in consideration of modern sense.

[The main temple of Chungryung-sa / Anseong-city, Gyeonggi-do Province]



[자연미와 비례미의 표현요소]

자연미와 비례미의 표현요소는 우리나라 자연미로부터 표현된 건축부재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질감과 그것을 통한 오브제적 감성미의 표현이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장식을 시작한 빗살무늬토기에서 얻은 감성적 경험의 주제로 가구와의 관계 속에 중요한 물질문화의 상징성을 아트퍼니처에 표현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요소는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내는 입면의 구성과 창호는 전형적인 황금비(黃金比)와 자승근비(自乘根比)로 나타나는 비례미이다. 이는 구성주의에 가까운 대칭과 비대칭의 적절한 조화 속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로 인식해서 연구자의 아트퍼니처로 재해석하였다.

[Vestige * Bench for three] 3800X240X420/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Bench 1] 1920X400X520/pine tree/2010

[Roofline of Manseru, Sunwoon-sa / Gochang-gun, North Jeolla Province]



연구자는 자연스러운 선에 대한 물음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내적인 존재의 의미로 한국적인 선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자연과 함께 지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자연스러운 선을 전통미가 깃들여진 건축이나 가구에서 항상 의미적인 가치로 부여하고 했다. 이러한 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날아갈 듯한 지붕선이다.

한국 전통건축미의 현수선과 같은 자연에서 오는 부드러운 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흔적-3인용벤치〉, 〈흔적-벤치1, 2〉를 제작하였다. 특히 작품 〈흔적-3인용벤치〉는 벤치의 기능으로써, 좌우에 기둥의 이미지를 표현한 테이블 기능과 대들보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적 윤곽선을 마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로 표현하였다. 즉 전통건축의 현수선을 아토퍼니처의 표현요소에 차용함으로써 전통건축의 부재를 통한 과거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The researcher has lived in nature with the intention to find a right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the natural line is while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ne as a meaning of the inner beauty. So, natural line presen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is evaluated as a meaningful value by researcher.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such lines is decidedly the rooflin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seems flying.

On the basis of the soft line image originating from nature like the catenary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architecture, 〈Vestige-Bench for three〉 and 〈Vestige-Bench 1,2〉 were created. The work 〈Vestige-Bench for three〉 in particular carries out the function as bench, while the tables on the right and left side expressing an image of the pillars and the structural outline displayed on the center of the ridgepole present the gentle and natural curve line. This is to feel that the past is touched by the catenary, an object which was used for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is borrowed hereupon as the factor of expression.

[Vestige * Bench for three] 3800X240X420/pine tree, acrylic color/2010





[Earthenware with the comb-teeth pattern / National Museum of Korea]



무채색의 근원인 흰색은 우리 민족의 주술적인 의미로 장식이나 기교를 절제하려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작품에 표현된 흰색의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이며, 독창적인 표현 매체로서 순수한 조형 형태로 가져오게 되었다.

연구 작품에 표현된 제작방법은 목재 표면에 톱으로 빗살무늬를 에칭 처리한 후 흰색 아크릴물감을 목재표면에 삽입하고 다시 표면을 대패로 깎게 되면 자연스러운 목리와 문양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상감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마치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흰색의 벽면과도 같은 담백한 형태의미를 표현한다.

White being the source of achromatic colors, belongs to the spiritual of n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 to moderate the decoration and technical skill, as a kind of charmanism. The meaning of the white presented in the research work is individual and it contributed to bringing up a pure formative construction.

The method of production for the research work is to treat etching of the comb teeth-pattern with a saw on the surface of the wood, and to insert the white acrylic paint, then to plain on the surface of the wood, so that the natural grain and texture of the wood appear. Such technique is derived from the inlaid work and is suitable for presenting the plain beauty as like the white wall show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



[Vestige * Stool for two 1] 1435X400X420 /pine tree, acrylic color/2010

전통건축에서 보는 입면은 흰 회벽을 갈색 나뭇결의 기둥과 보가 가른다. 그 사이에 창이 들어가는 장면은 전통건축이 만들어내는 이차원적 평면이면서도 간결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갖춘 추상미의 완성미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의 작품은 입면의 구성과 창호의 전형적인 비례미를 고려하여 대청과 비대청 중 자연미를 통한 재해석으로 아트퍼니처에 새로운 표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The front view of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the form the white lime-plastered wall is divided by the brown-grained pillar and beam. The scene of the window installed between them completes the abstract beauty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is two-dimensional and simple, but is equipped with a minimum necessity absolutely. Concerning this point, the research work provided Art Furniture with a new meaning of expression by reinterpreting the natural beauty of symmetry and asymmetry, in consideration of the typical portional beauty between the construction of the front side and the doors and windows.



[Vestige * Lighting 1-10] 930X45X130/ebony, pine tree, acrylic color/2010

[anhoe-dang, hongseong-dongheon / hongseong-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Palchung-sa / Buyeo-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흔적-조명등1-10〉, 〈흔적-콘솔2, 3〉, 〈흔적-거울1, 2〉나 그리고〈흔적-벤치1, 2〉은 한국의 전통사상 아래 음과 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철저한 면 분할의 비례와 조화로움으로 좌우 대칭적 목리와 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Vestige-Lighting 1-10〉, 〈Vestige-Console 2, 3〉, 〈Vestige-Mirror 1, 2〉 and 〈Vestige-Bench 1, 2〉 belong to the group of the works which suggest the proportion through a restrict division of sides and the harmony based on the bilateral symmetric grain of the wood, such as the balance of yin and yang which was passed down from Korean traditional thought.



[Vestige * Mirror 1, 2] 2020X55X350/ebony, pine tree, mirror/2010

[Vestige * Bench 1, 2] 1920X400X520/pine tree/2010

[Vestige * Lighting 1-10] 930X45X130/ebony, 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Console 2, 3] 570X265X770/ebony, 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The connecting bench] 3800X240X420/pine tree/2010

[재료적 구조미와 기능미의 표현요소]

재료적 구조미와 기능미의 표현요소는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 먼저 재료적인 측면은 소나무를 연구자가 창작하는데 있어 부드러움과 강인함으로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이것은 다른 무기질적인 재료에 비해 따뜻한 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견고한 재료로 조형 형태를 제작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였다. 또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은 연구자로 하여금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 세계관을 한국적 자연미의 표현요소로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구조미의 측면은 연구작품이 우리 전통기구의 비례미를 통한 약간의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형과 근본적인 요소는 한국 전통건축 구조나 양식에 표현된 요소들을 추구하였다. 이는 연구작품을 일품기구의 특성으로 독특한 조형감각의 숨씨를 통하여 훌륭한 가치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제작 기법은 이음기법과 맞춤기법으로 간결한 선과 쾌적한 면 분할 속에 목재의 목리를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그 쓰임새와 재료의 물성 그리고 각 부위에 받는 응력에 대한 구조역학은 물론 비례 등 시각적 효과를 감안한 격조 높은 기법이다. 이 결구방법은 목재의 결함인 사계절 변화에 의한 변형을 최대한 줄이면서 견실한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 요소로 전통기법을 근원으로 삼았다. 기능미의 측면은 아트퍼니처가 오브제적인 미적기능과 원(原)기능적인 면을 만족시켜야 하는 분야이다. 이것은 오브제가 현대 조형 전반에 새로운 표현으로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탈기능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Vestige * Console1] party



[Assembling technique]



[Joint technique]

[Factor of expression of material construction and functional beauty]

Material construction and functional factor of expression plays a meaningful role in creating Art Furniture. From material aspect, pine tree was the ideal object for the researcher to express the suppleness and strongness. It was softly touched by emotion compared with other inorganic material, but suitable for making formative construction due to solid characteristic in the other hand. Furthermore physical appearance of pine tree contributed to researcher's view on the world in order to create and express Art Furniture in natural Korean beauty. From construction asp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search work has a few abstract form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nevertheless the appearance and fundamental elements all pursue the factors expressed in construction and patter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t relies on the way that the research work was well expressed by the value of unique sense of formative ar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furniture.

The method of production was that the natural grain of wood is connected as natural as possible in the concise line and simple division of sides, based on joint and assembling. It is a refined technique considering not only the uses and properties of material, structural mechanic regarding the stress of each part, and the visual impact like proportion. This construction method contributes to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wood such as shrinking and expansion due to seasonal factors and to producing solid Art Furniture accordingly, and it was derived from traditional technique. Functional aspect indicates that Art Furniture satisfy not only aesthetic requirements, but also functional characteristics which it has primarily. In other words, functional aspect should be regarded as valuable factor of aesthetic expression, although "objet" which appeared as new expression against the existing fixed idea showed non-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modern plastic arts gene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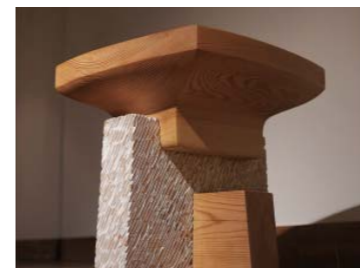
[The main temple of Bongjuung-sa / Andong-city, North Gyongsang Province]



[Vestige * Stool 1,2,3] 400X400X390/pine tree, acrylic color/2010

한국 전통건축의 공포이미지를 간략화 하여 스툴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전통건축의 구성요소에서 주두는 공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재이다. 이는 반복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동적인 요소를 이루어 내는 표현 형태로서 기능적인 표현매체로 제공된 것이다.

The function which stool has is suggested by expressing the minimized image of fear which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exudes. Among the components forming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capital is the principal element creating a terror atmosphere. It is built by the repeatedly installed component and the factor of dynamic expression support a functional aspect here.





[Gaek-sa / Gangneung-city, Gangwon Province]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모든 만물을 음과 양으로 상징하는 것처럼, 〈흔적-거울1, 2〉는 철저한 면 분할의 비례와 조화로움으로 좌우 대칭적 목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대들보의 절반은 거울의 쓰임으로 절반은 부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대들보의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울과 부재와의 일체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거울평면의 높이와 우측 목재부분의 평면높이를 맞추어 하나의 대들보 형태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는 보의 형태로 느낄 수 있는 부재 끝 부분이 기둥과의 구조적인 짜임의 한 부분이면서도 조형적 표현 요소라는 오브제적인 매체역할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Vestige * Mirror 1, 2] 2020X55X350/ebony, pine tree, mirror/2010

As Korean traditional thought symbolizes all things in the universe in yin and yang, 〈Vestige-Mirror 1, 2〉 present its meaning by suggesting the bilateral symmetry of the woodgrain based on the proportion of correct division of the sides and the harmony. The half of the beam plays a role as mirror and the other half shows the texture of the wood well, while the general form of the beam is not lost and the sense of unity, namely mirror and wood in one system is maintained. The same height of the flat surface of mirror and the right wooden part let this work seen like one beam. This tells that the edges of the work seem to be the form of beam belong to one part for the formative joint with the pillar in one side and are objet medium that conveys formative factor of expression in the other side.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틀을 이미지화하여 테이블의 기능으로 제작하였다. 이것은 좌식생활기능과 입식생활기능을 마치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안방의 좌식구조와 대청의 입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비의 미학으로 절묘한 전이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건축 지붕의 형태가 안채와 사랑채 등 높낮이 변화가 있듯이 두 가지의 기능적인 대비를 복합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공간 구성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며 현대 실내공간에 좌식과 입식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An imaging of the roof frame showe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based on the furniture which has the function of table. This furniture makes a comparison between the culture of sitting on the floor being usual in main room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culture of sitting on the chair in living room, and also makes the space changeable according to it's location. This functional comparison between two life-styles is expressed in combination with that the form of roof of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different height depending on that it belongs to the main building of house or the detached house for guest. The furniture has the modernized structure which makes the culture of sitting on floor as well as on chair available, because it can be differently arranged according to the spaces where it is placed.

[Vestige * Table] 3070X820X380/pine tree, acrylic color/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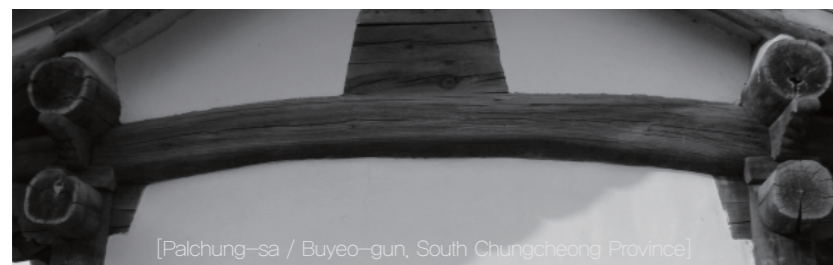
[Vestige * Bench for three] 3800X240X420/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Bench 1, 2] 1920X400X520/pine tree/2010

자연스럽게 걸터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좌우측에는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간 구성에 따라 마주보는 형태로, 좌우로 나란히 배치할 수 있고, 앞뒤 공간구성으로서 변형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형식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조형적 구성에 있어서 기본구조를 그르치지 않고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구조적인 짜임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The furniture is suitable for friendly conversation and the small table is attached on either side. According to design of spaces, it can be arranged in face-to-face form or in a line, furthermore different module of rearrangement is available in consideration of the front and rear of space. The formative joint method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s unchanged used without disturbing basic structure of formativ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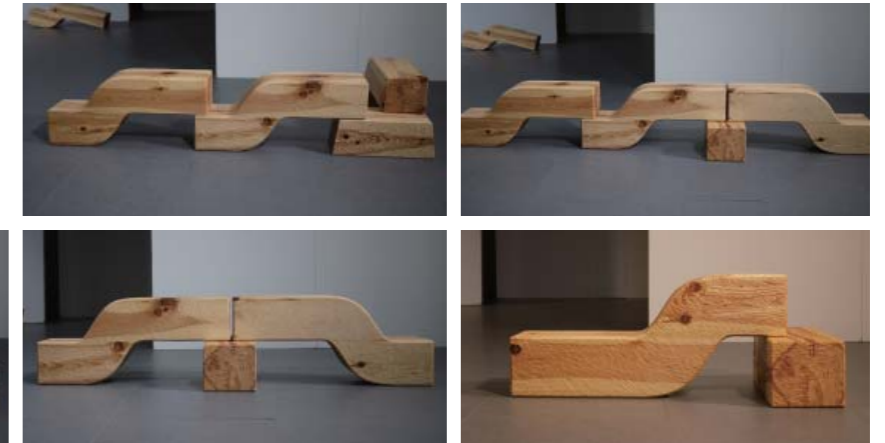


[Palchung-sa / Buyeo-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main temple of Sudeok-sa / Yesan-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마치 건축의 입면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한 칸 한 칸 늘릴 때마다 건축의 규모가 달라지듯이, 전통건축의 입면에서 나타나는 우미량의 구조미를 표현요소로 하였다. 이는 구조미와 균형미 그리고 질서미에서 느껴지는 표현들을 리듬감 있게, 한 단위의 구조체로 자연스럽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벤치기능으로 제작하였다.



As the front size of architecture is getting bigger whenever the space is added step by step, the factor of expression here is the formative beauty of the curved beam showed in the front sid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furniture has function as bench which naturally adjusts the length by connecting the unit by unit in which the formative beauty, balance and system are rhythmically expressed.

[Vestige * The connecting bench] 3800X240X420/pine tree

[Soro partly, seogeo-dang, Deoksu Palace / Seoul Metropolis]



한국 전통건축 부재인 소로 형태를 극 단순화하여 2인용 의자로 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건축의 대들보와 도리의 공간적인 구성요소에 안정적인 비례로 사용되었던 작은 형태의 부재이지만, 소로의 본질적인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표현요소로 차지하였다. 소로의 형태는 의자의 앉는 부분으로 재해석하여 전개함으로써,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 형태와 원목의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감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의자의 본질적인 기능미를 추구하려 하였다.

The furniture is stool for two produced by simplifying the form of Soro, a part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extremely. Though Soro is a small-formed component used for stable proportion in space between beam and purlin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t's essential image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factor of expression for the stool. The form of Soro is developed as seat of stool through re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in order to pursue the primary function of stool, on the basis of the image of natural texture which the soft-curved wood has.

[Vestige * Stool for two 2] 1025X400X420/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Console 1] 1400X265X750/ebony, pine tree/2010

[The Gyeongbok Palace / Seoul Metropolis]



[Factor of expression of spatial sensibility to beauty]

In Korean interior space, the factor of expression for spatial sensibility was found in a sense that the empty space was mainly designed than the occupied furnishing at forming the image of room. Researcher pursued the utmost controlled shape only concentrating the essential formative factor which Art Furniture has without decorative elements and considering the contemplative sense of aesthetic. Therefore Art Furniture makes interior space like a part of nature and offers broad mind like exactly what nature does. The reason lies in the way that the users feel pleasant and satisfied at placing Art Furniture in the space because they positively accept the use and beauty of Art Furniture. Furthermore, the users themselves find their personal meaning thanks to their own memories and association process and here is the point how Art Furniture plays a role as factor of expression of sensibility.

[Folk village in Weam-ri, / Asan-ci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Old house of Chusa Kim Jung-hee / Yesan-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공간적 감성미의 표현요소]

우리 실내공간은 가구가 놓일 때 먼저 채워진 공간보다 비움의 공간이 많은 형태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감성미의 표현요소를 찾았다. 연구자는 아트퍼니처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조형적인 요소로 장식적 의미를 배제하고 공간에 놓일 때 생기는 관조적인 심미성을 생각하여 극도의 절제된 형태만을 추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트퍼니처는 실내공간이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되며 자연과 같은 넉넉함을 지니게 된다. 또한 아트퍼니처가 공간에 놓일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용(用)과 미(美)에 대해 사용자로 하여금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사용자만의 기억과 연상 작용에 의한 개인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아트퍼니처가 감성미의 표현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Old house of Kwon Chung-jae / Bonghwa-gun, North Kyongsang Province]

전통건축의 솟을대문에서 이루어지는 풍경작용은 연구작품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표현요소로 면구성과 균형미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입면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외형테두리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공간적 구성미는 직각으로 이루어진 직선들의 대칭적 구성을 통해서 조화와 보편적 절대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흑단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성으로 밝고 어두운 나뭇결의 대비는 최선의 미적 표현을 추구한 것으로 모두가 한국의 자연미적 표현이며 하나의 자연적 질서인 것이다. 비록 연구작품의 형태는 간결하지만,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인 조형을 표현해 낸 것은 바로 전통건축의 특성인 풍경작용의 표현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The landscape which the toll gat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creates is the factor forming the structure of the research work and pursuing the construction of sides and balance. According to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the intense sensibility of space seen in the outlines follows a harmony and the universal absolute through the lineal symmetry forming a right angle. Above all, the material characteristic which ebony offers expressed the optimal level of aesthetic resulte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light and dark grain of wood and this is one of natural expressions representing Korea and the lawn of nature. Despite of the simplicity, the research work carries out its function excellently and the creative formation. This is made up by the factor of expression through the landscap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Vestige * Console 1] 1400X265X750/ebony, pine tree/2010



[Vestige * Console 2, 3] 570X265X770/ebony, 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The connecting bench] 3800X240X420/pine tree/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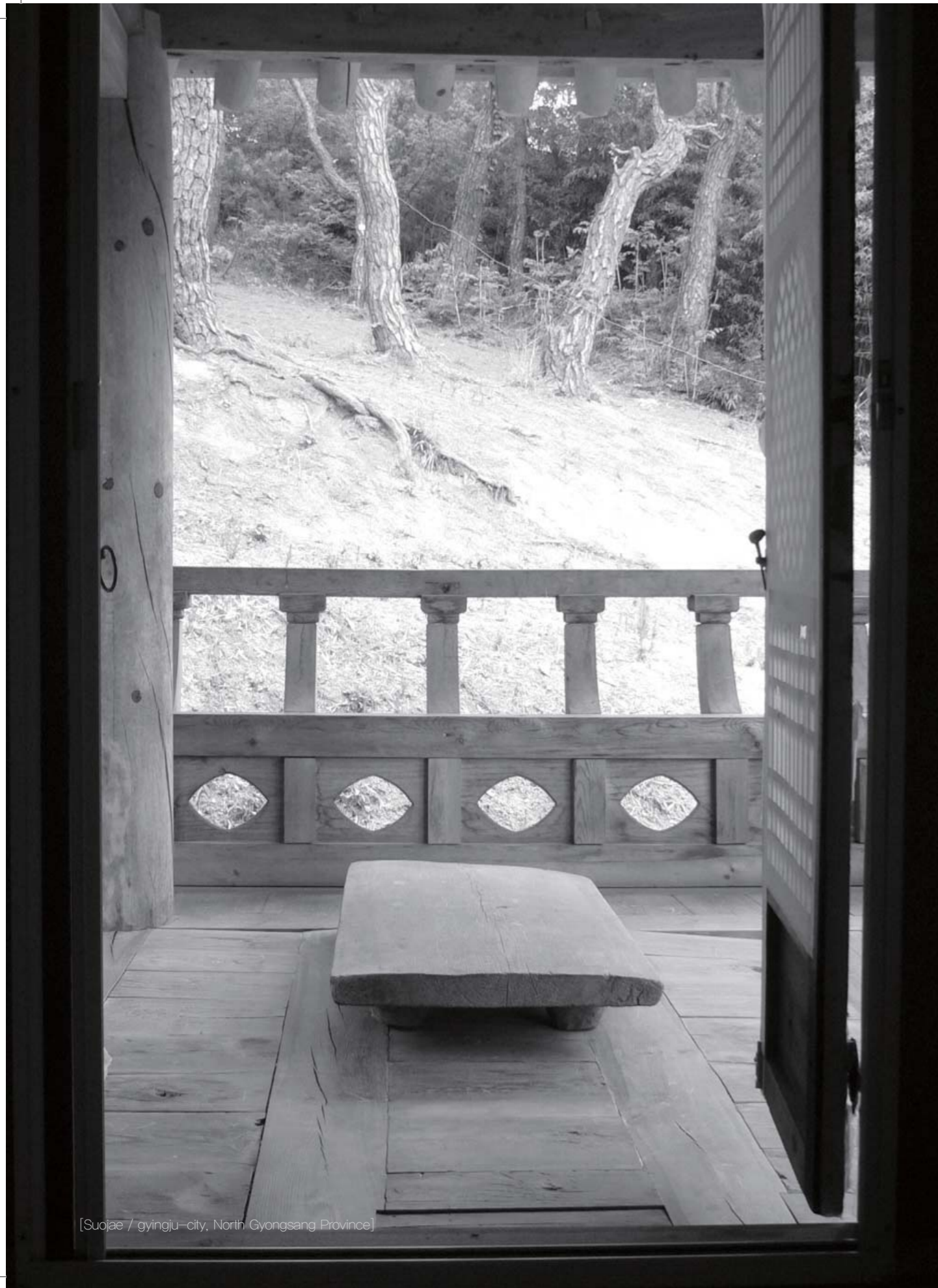


[Manseru, Bongjung-sa / Andong-city, North Gyeongsang Province]



다듬지 않은 자연스런 뗏돌은 여러 개를 연속해서 놓은 것 같이 질서와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를 떼어놓아 부분적인 단위로서 보면, 한 편이 옛 마루 앞에 모여있는 뗏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따라서 담백한 간결함을 가지는 동시에 공간에 놓일 때 공간을 구획하면서 오브제적인 감성미를 느낄 수 있다.

The unprocessed terrace stones lie in series inspire the sense of system and unity. Observing separately one by one as a partial unit, the image of the terrace stones feature a impressive scene of the old wooden floor. So, this elegant simplicity of the furniture touches the objet sensibility of space wherever it is arranged.



[Suojæ / gyeongju-city, North Gyongsang Province]

좌우, 앞뒤의 구성이 없는 사방에서 관조할 수 있는 조형 형태로 제작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작품들은 건축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대들보 특성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앞뒤의 표현이 같아서 그리고 놓이는 방법에 따라 공간 구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공간으로 독립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벽이나 파티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서의 실용적인 기능미를 떠나 오브제로 공간 속에 보여 주는 역할은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감성미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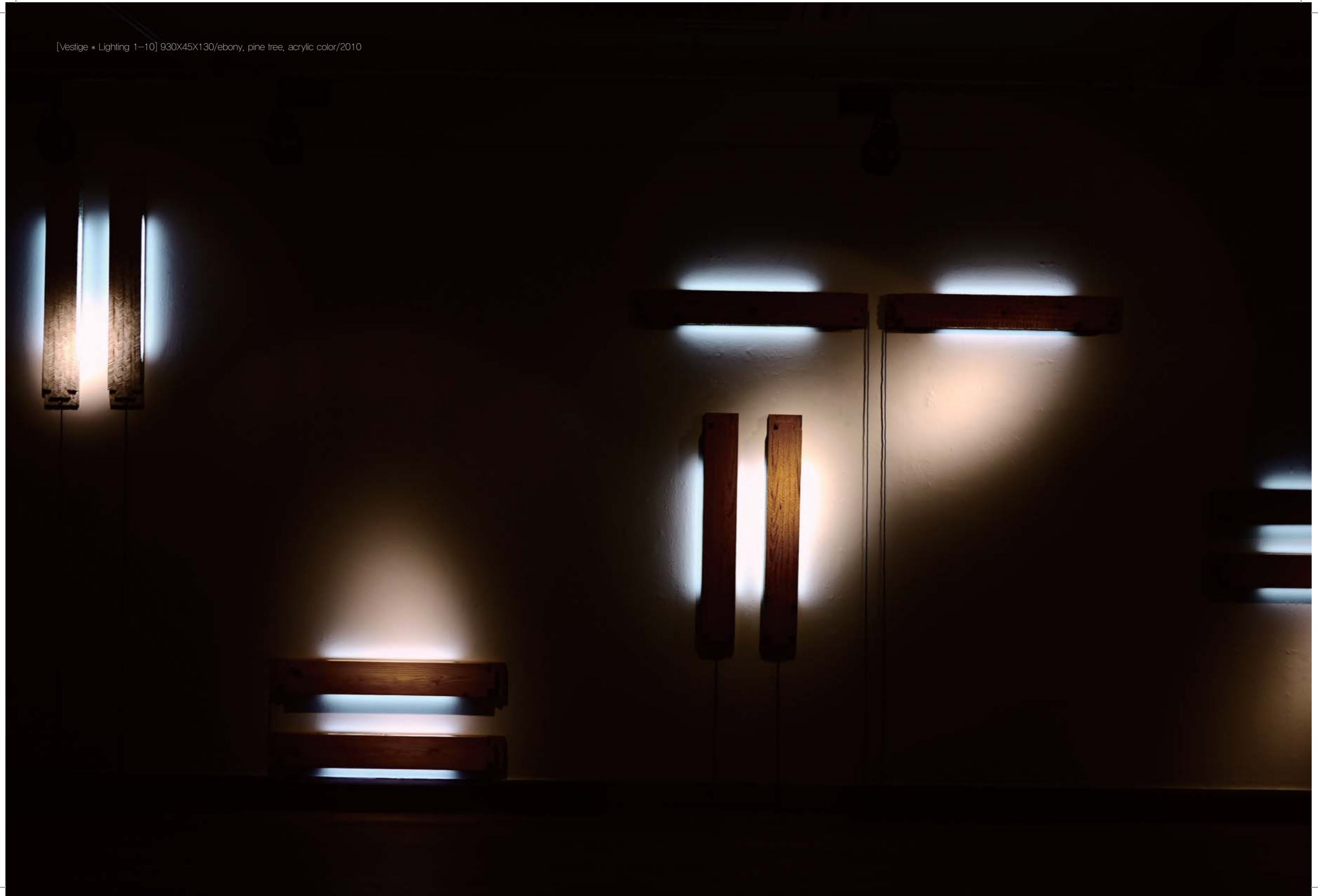
The work is furniture which can be contemplated from all directions, even in the space where there is no concept of front or rear and right or left. The furniture displays various arrangements of space according to its way to be placed, whereas the most of the research works present the same expression of the front and rear sides due to the location of beam which should be installed in the designated position of architecture.

The furniture as a separated space contributes to the sense of stability and takes over even the function of partition or wall and finally makes the users feel the spatial sensibility of beauty, with no reason to mention the practical function.

[Vestige * Bench for three] 3800X240X420/pine tree, acrylic color/2010



[Vestige * Lighting 1-10] 930X45X130/ebony, pine tree, acrylic color/2010



[흔 적]

계절의 변화에 힘껏 키운 나이테 하나
둘레만큼 굵어진
그대로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기 위한 건축의 부재로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독자성을 확보함은
예술적인 모티브로 삼을 만한 풍부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

시간성이 집약된 건축 부재들을 새로운 쓰임새로 끌어들이는
부재의 물성과 행위에 담긴 흔적들로
조형적 특질로 끌어냄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아트퍼니처로 탄생하였다.

한국 전통건축 미는 단연코 자연적인 재료와 함께
자연과 순응하면서 투박하고도 세련된
자연미의 근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 사용된 재료는 대부분 전통건축의 부재들이다.
전통건축의 부재들 가운데서도 들보는
가구(架構)를 구성하는 매체 중 가장 중요한 상징성으로
유교적인 전통적 가치를 부여하며
동시에 물질적 특성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부재와 부재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부재들의 역할은
일시적인 결합 이후 날개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존재로
조형성과 기능의 대립적인 요소들을 엮어내는 상생의 메시지이다.

대부분 전통건축 부재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아름다운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부재들을 자연미적 관점에서 조형적 특성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실내공간에 아트퍼니처로써 쓰임은
지난 흔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새로운 인류의 흔적으로
남기고 싶다.

< 2010년8월16일 >

[Vestige]

*A growth ring the turning of season raised
Being as thick as the girth
As it is become column and beam
As component of architecture to make a new one
Also it, as such, as one formative component
Ensures its identity
Has enough metaphor to be artistic motive.*

*The components of architecture showing the long
tradition Intensively was involved in new uses
The trace showed in their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Influenced the formative features
These created the modernly reinterpreted Art Furniture.*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architecture has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natural beauty which is
crude,
But refined at the same time,
For it was made of natural material in sympathy with the
nature.*

*The material used for this exhibition are mostly
the compon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mong
others, the beam has the most Importance at creating
a construction and it gives the traditional Value of
Confucianism and inspires meaningful processes beyon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Moreover, the role of the small component connecting
between Construction materials has the meaning as
structural existence Which is recovered as piece by
piece after a temporary joint and it Means the message
of the spirit coexistence interweav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which are opposing factors.*

*The most compon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presented in Close relation with beautiful nature,
being exposed into the Outside. These components
were used as Art Furniture in new Interior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ural beau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is
should Hopefully tell the story of the past vestiges and
leave new trace Of mankind at the same time.*

< Aug. 16th, 2010 >

이 논문은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재현하고자 한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로서, 전국의 전통건축들을 실제 답사를 통해 선인들이 제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통미를 현대화하고 이것들을 가구에 표현했다는 점이 매우 돋보인다. 때문에 독창성 있는 예술로서, 또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안 귀 숙

공예미술사가

This study first deals with Art Furniture which realizes the tradition into modern furniture. For this project, the researcher has visited traditional architectu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in Korea. This resulted in the modernized form of furniture so-called contemporary Art Furniture. In this regard, the dissertation should be highly valuable in opening a new door to the perspective that Art Furniture opened a new possibility as a creative artwork and art goods.

An, Kyu-sook

Ph.D. Art Historian in Design History and Theory



[The first Museum of Modern Art at Hongik University] From Aug. 16th to 21st, 2010

Ⓐ ———— l'm k s
editor ———— Hong soui
photography ———— Sun media

